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개회사

주 안에서의 존경하는 신부님들과 친애하는 협력자 여러분,

자애로우신 주님께, 지난 한 해와 새로운 해를 위해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주심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서운 코로나19 전염병 속에서도 한국정교회를 무사히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정교회 한국대교구의 어떠한 지역성당에서도 성당을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전능하고 위대한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련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를 간청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올해 제 17회 대교구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침에 따라 대면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유로 필요에 의해 우리는 처음으로 온라인 대교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셔서 멀리서도 우리가 서로가 보고, 들으면서 두려움 없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선의 후원자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한 기쁨과 영예를 지니고, 새로운 해에 영적 결실이 풍성하고 대교구의회의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애정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제 17회 대교구의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큰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중심 주제 : 마음의 길 - 친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사도행전2:42)

마음의 길 - 친교 : 우리는 2020년에 이 주제를 배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제정하였었습니다. 작년 대교구의회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목표는, 친교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관계를 가져야하는 길로 가기 위해 우리 각자가 모두 함께 친교를 나누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 문제가 우리 사이의 직접적 접촉을 함양하려는 것을 방해했고, 온 세상에서 2020년에 계획된 많은 사업들의 경우처럼 우리의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매년 새해에 대교구의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작년의 주제를 올해 2021년에도 함양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직접적인 사람들 간의 친교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친교의 결핍을 경험을 통해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로 봉쇄령을 내린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슈퍼마켓, 약국 또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할 때도 경찰에게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신청한 서류를 보여야만 했고, 시민들은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곁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방문할 수도 없고, 부모나 가족들의 기념일과 축일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 것이 서로간의 친교가 큰 가치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심리적 문제들

경제 위기를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사건들은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발생시켰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심리적 문제가 증가함으로 해서 2029년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12%까지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큰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친교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과 직접적 대면을 통해 친교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사람을 하느님의 빛으로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EPIE 12:94)

* * *

영적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전례가 없었던 상황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거리를 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한 중대한 영적 문제는, 우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공적 예배를 박탈당했고, 아직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신자들의 참여 없이 거룩한 예배를 거행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의 성사 생활에 참여하는 것, 특히 성체성혈 성사와 고백성사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큰 영적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모임은 금지되어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되었고, 다른 영적 모임, 성서공부, 주일학교 모임, 수련회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요구하면서 제기하는 질문은 ‘인류에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유행기간 동안 수많은 회사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면서 인터넷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친교를 나누고,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 때부터 온라인 원격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선물인 인간적 친교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기계는 노동을 대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민감한 대인관계도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조만간에 하느님의 도움으로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많은 비대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B.c.(Before Coronavirus)시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 유행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A.c.(After Coronavirus)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비대면의, 불행하게도 인간적 친교가 축소되는 사회로 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의 친교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모상인 사람으로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근본적인

친교를 가지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유일한 마음의 길이고 하느님의 큰 선물인 의사소통을 수호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인간 본성의 신성함을 파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하느님의 큰 선물인 현대 기술을 하느님에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배우면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 이웃들과의 사이에 전자기기의 어떠한 모니터의 “벽”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하고도 대인관계의 친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기기를 끄고 자기의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동료들 직접 만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말씀(마태오25:31~46)에서 “세상 시작부터 준비된 왕국을 우리가 상속 받기” 위해서는 6가지 기본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사항을 -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가는 것 - 다른 삼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직접 행해야 한다고 하셨고, 이러한 각각의 행위에는 희생과 개인적 수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목적 문제들

전염병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목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예배와 설교는 벌써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예배는 참여자 없이 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교회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가 공동예배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기간, 자연재해, 성당이나 사제가 없을 때,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침대를 벗어날 수 없을 때, 또한 가정이나 병원에서 천사들처럼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영혼만은 예배에 참여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그들의 불참은 합당한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현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 우리 교회는 애정이 많은 어머니로서 항상 “합당한 이유로 참여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예배에 불참할 심각한 이유가 없거나, 그리스도인으로 태만과 무관심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인 형제들과 대면해서 친교를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즉, 교회의 삶에 실제로 참여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구성원으로 대체하여 행동할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신성한 예배의 장소는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들과 연합되는 신성한 감사의 성사 후에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거리를 두고 온라인으로만이 아닌, 생생하게 얼굴을 맞대는 관계를 가져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그리고 서로 간에 형제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에 의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다른 한편으로는 빛의 형상인 교회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에서의 친교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 * *

자기성찰의 기회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보지는 맙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첫 걸음은 자기성찰입니다. 자기성찰을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 각자를 위한 자기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 생각해봅시다 :

몇 번이나 성당에 습관적으로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내적 필요와 인식을 가지고 성당에 올 때입니다.

몇 번이나 신성한 감사의 성사에 회개와 뉘우침 없이 왔습니까? 이제는 신성한 양식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참여할 때입니다.

몇 번이나 유혹의 덫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또한 무서운 죄의 세균과 투쟁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이제는 악마가 우리 영혼을 독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기심이 파괴하도록 방치하였습니까? 이제는 하느님과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몇 번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있기 전에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안아줄 수 있었을 때”,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사랑과 자선의 마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고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였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스크가 우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리따운 노래”(시편45:1)와 “유익한 말”(골로사이4:6)을 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만 입을 여는 것을 배울 때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는 “귀가 무디어져서”(히브리5:11)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게으름으로 육적, 영적 귀를 닫았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루가8:8)라는 축복된 부류에 속하도록 귀를 활짝 열 때입니다.

자애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 위해 용납하신 코로나19의 교육적 시련이, 혹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아모스8:11)라는 예언의 성취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봅시다.

희망적 메시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느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강해질수록, 하느님의 우리에게 대한 격려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EPIE 33:150) 그리고 “금 세공사는 금 덩어리를 강한 불에 넣고 순금만 남을 때까지 불에 태웁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이러한 시점까지 시련을 용납하십니다.”(요한 크리소스토모스. EPIE 37:348)

우리의 목표

다음은 2021년도 우리의 목표로 정합시다. :

첫 번째, 신자들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진실한 친교를 가꾸어 나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과 친교를

나눔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특별히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나 올 수 있게 성당이 열린다 하더라도 다시 아이들과 청년들은 성당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도움으로 코로나19가 주는 시련이 지나가고 “직접 대면하고”(요한2서12절)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서, 하느님과 또 우리 형제들과의 올바른 친교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친교가 마음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 * *

친애하는 형제자매여러분, 대교구 정관에 따라 2020년 영적, 재정적 사업 결산과 2021년 영적, 재정적 사업 예산을 보고하기 전에 하느님의 도움으로 2020년 실행된 주요한 영적, 시설 사업과 2021년 목표로 잡고 실행해야할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

2020년 영적 사업 결산

1.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운영

우리의 구세주 변모 수도원은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아가티 수녀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작년 한 해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을 위한 지침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과 영혼의 위안을 제공하면서 계속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수도원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계시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귀중한 영적 양식을 제공해주시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도원의 책임사제로 봉사하고 계시는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에게 감사드립니다.

2. 예배 생활

2020년 시작부터 3월 말까지 교회의 예배 생활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27일 금요일(기립찬양 제 4스타시스) 예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침에 따라 모든

지역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제한적 인원으로도, 모두가 알고 있는 지침을 준수하면서 드렸습니다. 예배 기도문에 특별한 기도 문구 추가하였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15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안식한 자들, 환자들과 의사들, 간호사들과 도움을 주는 이들과 학자들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서 주일 성찬예배를 신자들이 가정에서도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3. 세례성사, 결혼성사, 장례식

모든 지역성당에서 전체적으로 성인과 유아 21명이 세례성사(19)와 견진성사(2)를 받았고, 3쌍이 결혼성사를 올렸습니다. 장례식은 가브리엘라 정준금(전주 4월 12일), 세라핌 김선률(인천 4월 30일), 이리니 이수영(서울 7월 6일), 게오르기오스 박순해(서울 7월 14일), 바울로 김노경(인천 10월 30일) 교우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 한국에서 정교회 120주년

지난 해 2월과 10월에 기획했던 한국에서의 정교회 12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코로나19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수개월 전 부터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5. 정교회출판사

우리 대교구의 “정교회출판사”에서는, 나중에 보고를 통해서 보겠지만, 작년에 두 권의 새 책을 출판하였고, 다른 두 권의 책을 재판하였습니다. 또한 9권의 책들을 번역하였습니다.

6. 한국정교회 대교구 홈페이지

우리 한국정교회의 소셜 네트워크인 홈페이지 www.orthodoxkorea.org는 계속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슬라브 교인들과 영어권 사용 교인들, 그리스어 사용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올바르게 증언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7. 수련회 사업

계획되었던 겨울과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대신해서 각 지역성당에서 3일간의 특별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전염병의 강도가 약화되어 학교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주(2020년 11월 7~8일)와 울산(2020년 11월 14~15)에서만 2일간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거룩한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 정교회에 대한 강의

한국에서 정교회에 대한 강의는 한국 대주교의 지도하에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에 의해 주로 온라인으로, 국외로도, 이루어졌습니다.

9. 성직자 양성기금

2020년에도, 2016년 제 13차 대교구의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성직자 양성기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총 181,289,486원입니다. 주님의 한국교회의 포도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길 원하는, 사제직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인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열성과 성의를 다해 매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 선박 성수식 거행

2020년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조선소에서 한국의 대주교,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로만 카프작 신부, 크리스토퍼 모어 신부가 봉사하였습니다.

11. 한국 사회의 문제와 행사 참여

한국의 대주교는 NCK의 교단장들과 박양우 문체부장관과의 만남(2020년 9월 16일)을 통해 코로나19 시기에 교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NCK로부터 성 소피아 성당의 이슬람 사원으로 개종하는 것과 Nagorno-Karabakh(아르메니아)전쟁에 반대하는 항의 성명서들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성명서들은 한국어 및 영어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주교좌 대성당에서 Video Clip과 단편영화 1편이 촬영되었습니다.

KBS1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서 마포구 아현동의 명소로 성당을 촬영하였습니다.(코로나19로 방영 안 됨.)

명동 성당 소유의 전시실에서 “Biblical Motives and Stories” 주제의 전시회(2020년 8월 12~24일)에 한국의 대주교는 참석하고 발언하였습니다.

12. 비정교회와의 친교

작년에도 정교회 한국대교구는 교회간의 신학적 대화를 위해 NCKK와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여러 모임(총회, 실행위원회, 교회일치위원회, 국제위원회, 화해통일위원회, 종교간대화위원회, NCKK 100주년 준비위원회)에, 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정교회 120주년에 대한 CBS 인터뷰(2020년 5월 31일)

코로나19에 대한 NCKK 기자회견(2020년 8월 10일)

신앙과 직제협의회의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온라인 전시(11월 11일 ~ 12월 8일)에 성화들과 동영상 인사말로 참여하였습니다.

비정교회와의 친교와 한국사회에 정교회에 대한 증언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인터뷰, 잡지, 신문, 팟캐스트(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러시아 사람들 대상의 유명 유튜버(구독자70만명-서울 성당에서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로만 카프착 신부와 인터뷰) 동영상에 기고하거나 출연하였습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에서는 전염병이 발생되기 전까지 매주일 1층을 에티오피아 정교인들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해주었습니다.

13. 해외출장

한국의 대주교는 호주 대교구의 축일에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의 대리로 호주에 방문하였습니다.

14. 교회 유물들 관리

우리 소유에 있는 귀중한 유물들(성화, 성물, 제의, 고서 등)이 세월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대교구에서 복원, 수리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올해에도 하느님의 도움과 함께 나머지 유물들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근접 부지 구입

지난 해 대교구의회 결정에 따라, 이웃에 의한 수도원 운영에 문제 제기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또 더 넓은 부지 확보를 위해 강 쪽으로 수도원 경계에서 510평의 부지를 1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구매계약은 2020년 7월 16일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날 결제되었습니다.

16. 전주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성당과 영성센터에 대한 건축사무소 JYA-RCHITECTS의 설계가 완성되고 나서 열개의

시공사의 견적과 공사내용을 건축위원에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주)이에코건설을 선정하였고, 2020년 4월 2개동의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대교구와 시공사와의 계약서는 2020년 3월 20일에 서명이 되었고, 4월 10일에 머릿돌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제 곧 자료로 보시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 우리 교회의 재정건축을 위한 노력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이 교회의 유지, 관리 및 한국에 정교회를 알리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모든 지역 성당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아가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아가페 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발전을 이루어 교회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성당들 모두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충당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니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느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디모테오1:17)이라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내외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 안아주고 감사드립니다.

B.

2021년 영적 프로그램과 사업 계획

1. 한국에서의 정교회 120주년

올해 11월에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 그동안 연기되었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정교회 한국대교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성화들과 유물들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전시회와 함께 예배와 다른 행사들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정교회 120주년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우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정교회의 증언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2.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과 영성센터 완공

앞에서 언급했고, 사진 자료를 통해서 보았듯이 전주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과

영성센터는 5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주)이에코건설 시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올해 7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262,690,000원으로 50%가 지불되었고, 나머지 50%인 1,262,690,000원은 보상금으로 받은 건축비로 지불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재건축비 통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들이 들어왔습니다. : 1. 호주 대교구에서 100,000호주달러. 2. LH공사로부터 환지금 74,430,100원. 3. 전주 사택 매도 134,000,000원. 그리고 여러 많은 분들로부터 100~5,000유로 기부금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고 안토니오스와 고 마리안티 푸리오티스 부부로부터 200,000유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비는 815,401,496원이 있고 447,288,504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거룩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2021년 가을에 성당 문과 영성센터 문 여는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공사대금이 모일 수 있도록 성모님의 중보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3. 서울에 정교회 교육문화 센터 설립

건축사무소 JYA-RCHITECTS로부터 서울에 정교회 교육문화 센터의 계획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센터는 신학교, 도서관, 다용도 강의실, 그리스 유물과 그리스도교 예술 박물관, 비잔틴 성화 학교 등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재정긴축을 위한 관심과 노력 속에는 이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 구입이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II고린토13:13 참조)로 한국에 정교회의 증언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해에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합시다. 아멘.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